

미군 제 2 보병사단 박물관

-1

윌리엄 알렉산더

박물관장

*육군 장교 대령으로 30년간 근무 후 퇴임

*직업 교육학 석사 / 루이빌 대학교 상담과

*루이빌 대학교 대학원 / 메릴랜드 대학교 대학원

*역사와 문학 학사/북 조지아 대학 정치학

*레벨 대학, 미 육군 지휘 참모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14년간 재직

미 제2보병사단 박물관 직원들을 대표하여, 박물관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보병사단 그리고 과거와 현재 모두 우리 부대의 심장과 같은 존재인 군인들의 역사와 함께 자랑스러운 미 제2 보병사단 전시물들을 보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군인장병들 그리고 시민가족 여러분 모두함께 과거부터 현재, 미래의 점병사단, 미 제2보병사단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 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제일의 전시!

-2

목차

감사인사 1

제2 보병사단 박물관 역사 3

캠프 레드 클라우드 4

시각 자료

연대 유물 보관소 5

로비 9

제 1차 세계대전	11
휴지기	14
제 2차 세계대전	15
제 2차 세계대전 후	20
김동석 대장실	21
한국 전쟁	23
냉전	28
이라크 해방작전	32
카투사 프로그램	34
지평리 리더십 연구실	36
제2 보병사단 보건소장 수혜자	39
북한 국기	38
박물관 내 영화관	43
움직이는 갤러리	44
한국 전시품들	45
박물관 밖	46

-3 제2 보병사단 박물관 역사

제 2 보병사단은 제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유물을 보존해 오며 역사를 만들었다. 1920년대에 텍사스 포트 샘 허스턴에 보존된 유물들이 우리 박물관으로 와서 뼈대가 되었다. 사단이 유럽으로 배치되고 제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또 다른 유물들이 생겨났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유물들이 더 생겨나게 되었고 콜렉션 규모도 더 커졌다. 1953년 워싱턴 포트 루이스에서 세미포털 형태의 박물관이 생겨났고 1965년 한국으로 부대복귀 후 제대로 된 박물관은 캠프 케이지에 건립되었다.

1994년 12월 캠프 케이지에서 캠프 레드 클라우드로 박물관이 이전되었다. 1995년 10월 25일에 정식 개방을 했다. 1996년 5월 22일에 제 2 보병사단 박물관은 증명된 군사 박물관으로서 정식 명명 되었고, 미국 군사 박물관에 등록되었다.

박물관 건물 'S-90' 7은 1954년에 건립되었으며 박물관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장교 클럽이었다. 벽재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있고 바닥은 총 14000 평방피트이다. 현재 박물관의 총 넓이는 약 17000 평방피트이다.

강령

제 2 보병사단 박물관은 유물을 찾아서 보존하고 191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박물관과 관련된 중요한 자산으로 역사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박물관은 군사 훈련이나 교육 등을 전시나 출판, 교육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행할 예정이다. 또, 우리 박물관은 두 번째 목표로 서 미군의 경험을 한국 반도에 알리려 한다. 우리 박물관은 현재 유물들과 함께 보병사단과 관련이 깊은 역사적 사진들을 제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오늘날군사 자유 경비구역에 이르기 까지 전시하고 있다.

-4 캠프 레드 클라우드

레드 클라우드 캠프는 1950년 11월 5일, 제 24 보병사단 19 보병 연대에 소속되어 한국전쟁 중 중국공산당에 대적하다 전사한 상등병 미셸 레드 클라우드 경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 날 그는 산등성이 꼭대기에 있었고 앞에는 명령을 지시하는 사령부가 있었다. 그의 역할은 중국공산당이 접근할 시에 가장 먼저 적군을 발견하는 것이었는데,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터 100피트 떨어진 곳에 있는 수풀로 무장한 본부에 위험신호를 보내는 일을 했다. 미셸 레드 클라우드 경의 신속하고 민첩함으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소총을 전달하는 등 재빠르고 정확했던 행동 덕분에 부대는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방어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전혀 겁먹지 않은 채로 상등병 레드 클라우드는 상대의 폭격에 심하게 부상을 입을 때 까지 본인의 자리를 지켰다. 이 용감한 행동은 적군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도록 도왔고, 적군에 대항해 시간을 벌게 되어 부상자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다.

예전에 부대는 캠프 잭슨으로 알려졌었지만 1957년 5월 18일 그를 영웅적으로 추모하기 위해 캠프이름을 '레드 클라우드 캠프' 로 다시 명명했다. 상등병 레드 클라우드는 그가 죽은 후에 영웅으로 추모 받아 1951년 4월 9일에 미 정부는 미육군대장인 그의 부모님 오마 브라들리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5 연대 유물 보관소

리스컴 볼은 중국에 대한 미국 구호를 배경으로 한다. 1900년 6월 13일 중국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연대는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텐진을 장악했다. 해군 부대를 제외하고 제 9 보병사단 부대만이 현장에 있거나 전투에 참가한 유일한 미군 부대였다. 텐진 방어선을 공격 하는 와중에 리스컴 대령은 중국의 폭격으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공격을 멈추지 마라"였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부대의 좌우명이다.

텐진을 함락 후 각 구역으로 분할하였으며 각 구역은 여러 나라들이 관할해서 관리하였다. 도시의 각 구역은 화염에 둘러싸이고 재산은 몰수당하고 개인적으로 약탈이 일어나기도 했다.

-6

6월 15일, 그로부터 이틀 뒤 정부 화폐가 미군이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 발견되었고 보고를 받은 미 해군 장교 푸트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 하였다. 일대 지역은 추가 공격이 없도록 즉각 제 9 보병사단의 보호를 받았고 당시 텐진 미 해상장교인 코로넬 미드는 이 소식을 통보받았다.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약 376,000달러 가치로 추정되는 은괴가 발견되었다. 미드는 은괴를 없앨 것을 지시했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양 함선에 은괴를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은괴가 조폐국에서 운반된 후에 열로 인하여 이 은괴는 서로 녹아 붙어버려 큰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버렸다. 이 은 두덩어리가 건물 안에서 발견되어 제거된 마지막 은괴 들이다.

연대 장교이자 제 9 보병사단 대표였던 프랭크 램지 선장은 두 은 덩어리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소개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중국 방문에 대한 감사 답례로 리 형 장 왕자가 맡았다.

1901년 초 북경에 머무를 때, 자산을 관리했던 램지 선장은 망가져 버린 은 덩어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해 보기 위해 비공식적인 회의를 열었다.

리스컴 볼 이 트로피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그때였다. 북경을 떠나기 전에, 52개의 컵들과 그에 따른 컬렉션들은 중국 은 세공인에게 다시 제작 의뢰 되었다.

1902년 4월, 필리핀에서 돌아온 후 연대는 녹아 뭉쳐져 버린 은덩어리를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정교한 그릇 제작 하는 아더 본드&컴퍼니로 실어 보냈다. 1903년 4월, 약 일 년이 지난 뒤에야 연대가 내린 지시를 따른다는 보고가 있었다. 화려하게 장식이 된 커다란 그릇이었다.

-7

그릇의 디자인을 보면 4마리의 황제용이 각각 모서리에서 서로를 응시하고 있고, 4개의 손잡이가 몸통을 휘감고 있었다. 디자인에는 접시와 국자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그릇을 제작하는 데에는 8개월이 걸렸고 1902년 11월 2일에서야 비로소 완성되었다. 하지만 연대가 그릇을 받은 것은 1903년 4월 뉴욕에 있는 매디슨 버락에서 받게 되고, 그릇은 수에즈 운하를 거쳐 미국에서 보낸 배로 운송되었다.

점차 주문제작 방식이 발달되기 시작하였고, 첫 번째 제작품은 연대에 몸담았던 개인들의 추억을 기리기 위해서 컵을 만들었다. 처음으로 새겼던 문구는 '리스컴 대령' 이었다.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부터 만주사변까지 컬렉션이 생겨났다. 밑에 보이는 사진에서 가운데에 있는 남자가 리스컴 대령이다.

〈제 9 보병사단 사령관 리스컴 에머슨 대령과 중국 장교들, 1900년〉

-8

이 종이 발랑기가 종이며, 원래 이 종은 필리핀에 있는 사마라라는 지역에 발랑기가라는 마을에서 교회 종으로 쓰였다. 공격 하루 전날, 300명의 침입자들이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왔고 1901년 9월 28일 부터 이 종은 마을을 공격하려는 침략자들을 알리기 위해 쓰여 왔다. 찰리 컴퍼니를 지었던 74명의 병사 가운데 지휘관 토마스 코넬을 포함한 절반이 전투 중에 전사하였고 단 네 명만이 아무 부상 없이 탈출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이나 노력은 선구자 취급을 받지 못했다.

만주사변에서 약 250명의 전사자들이 죽었다. 마침내 에코컴퍼니에서 그들의 한을 달래주게 되었으며, 제 9 보병사단이 1901년 4월 9일 집으로 향해하던 날, 마을사람들은 이 종을 감사의 표시로 전달했다.

-9 로비

이 사람들이 만든 배지는 유진 골드백이 제안한 아이디어이며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사이에 유명했다. 아래 보이는 두 사진이 자랑스러운 제 2보병사단을 표현하고 있다.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은 1925년 11월에 텍사스 샘 허스틴에서 찍은 사진이며 맨 앞에 폴 말론 대령이 서있다. 두 번째 사진은 2009년 5월 한국에 있는 캠프 캄지에서 찍었으며 존 모간 대령이 맨 앞에 서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이 ‘사람들이 만든 배지’는 5200명의 병사들과 민간인 한명이 만들고 있고, 민간인 한명은 자세히 보면 인디언 목 아래에 서있다.

-10 로비

마이클 콜린스는 그의 친구들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알드린과 함께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그의 가족은 군대와 깊고 오래된 역사가 있다. 그의 아버지인 제임스 로턴 콜린스는 1939년부터 1940년까지 제 2 보병사단을 지휘했으며 삼촌인 조셉 콜린스 대장은 한국전쟁 동안에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했다. 그의 동생인 제임스 콜린스는 약 12년 동안 합참의장을 맡았다. 가족이 군에 있던 시간을 합하면 약 186년이 된다. 여러분이 보는 배지는 마이클 콜린 아버지인 제임스 콜린스가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1969년 6월 16일에 달에 임무를 수행하러 갔을 때 함께 가져갔던 것이기도 했다. 배지 아래 쓰여 있는 문구는 이 배지가 실제로 그가 가져갔던 것이라는 것과 이것이 복제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제 2 보병사단은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 밖 우주에 까지 머물렀던 유일한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11 제1차세계대전

제 2 보병사단은 1917년 2월 26일, 프랑스에 있는 버몬트에서 창시 되었다. 활동 할 당시에 인디언 헤드 사단(제2미군사단의 별칭)은 육·해군으로 활동하였는데, 미 보병여단, 미 해군여단 그리고 대포여단과 다양한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동안 사단은 해병대 준장 찰스 도원 그리고 소장 존 레진이 지휘했는데 이는 미군 역사상 해병대장이 육군사단을 지휘한 유일한 사건이었다.

1917년부터 1918년 까지 사단은 프랑스 병사들을 전쟁에 대비해 교육시켰고 1918년 봄에 제2 보병사단은 벨로 숲 전투에서 그들의 전투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12

제 2 보병사단은 상 미엘 (프랑스동북부, Nancy북서방의Meuse강에 인접해 있는 마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독일의 격전지(1918)), 몽블랑 산 등성이, 샤토티에리, 모르제 아르곤느와 같은 곳에서 교전을 이끌었다.

1918년 11월 휴전 선언 후 1919년 4월에서야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군인들은 참호 안에서 혹은 밖에서 생활했다. 실제모습과 유사하게 재현하려 했으나 2피트나 되는 진흙을 박물관 안에 세우는 것이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 재현 할 수 없었다. 제2 보병사단에서 썼던 물품들은 왼쪽에서 볼 수 있다.

새장 안을 보면 새가 있는데, 새들은 주로 유독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알려주는 용도로 쓰였다.

-13

참호 밖으로 나오면, 미 m-1903 스프링필드 소총을 비롯한 독일 제수냉각 맥심 총, 그리고 잠망경등 제 2 보병사단 군인들이 사용했던 더 많은 물품들을 볼 수 있다.

〈제 1차 세계대전 때 제2보병사단 군인들이 사용했던 도구들〉

오늘날 병사들 옷소매에 달린 이 배지의 유래는 1918년 3월 누가 가장 멋진 배지를 만들어 오는지를 보는 윌리엄 헤링쇼 중령이 개최했던 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윌리엄 중령은 병장 루이스가 제안한 인디언머리와 병장 존 케니가 제안한 하얀 별을 채택했다. 각 단위는 배경색과 모양을 정한다. 검정, 보라, 초록색은 각각 본부, 포병대, 지원대를 상징한다. 모양역시 부대에 따라 다르다. 1918년 1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2보병사단의 공식적인 배지 모양인 인디언머리와 하얀 별이 되었다. 1933년에 프레스턴 브라운은 각기 다른 배경을 모두 없애 버리고 사단 모든 요소를 공식적인 하나의 배지 모양으로 통일했다.

-14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단은 텍사스 산 앤토니오에 있는 포트 샘 허스턴으로 이동했고 거기서 혁신적인 군대를 위한 새로운 컨셉을 시도해 보려는 차원으로 약 23년 동안 머물렀다. 사단은 기존 네 개의 사단이 있었던 것에서 세 개로 바뀌면서 정비된 지휘업무를 최초로 맡게 되었다. 그들은 최초로 약 2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전투현장에서 쓰일 공중 기동력 기능과 대전차 복지를 개척해 나갔다.

위에 보이는 것이 하울랜드 트로피이다. 제 2보병사단 지휘관이었던 BG 하울랜드가 제 23보병단에게 수여했던 트로피이다. 이 하울랜드 트로피는 "모든 방면의 군사부문에 뛰어남" 부대에 수여한 것이다.

-15 제2차세계대전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2보병사단은 또 다른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 도로 횡단 전투 중에, 사단은 샘 허스턴에 있는 집을 떠나 위스콘신에 있는 캠프 맥코이로 그리고 1944년 초 아일랜드로 이동했다. 약 10개월의 집중적인 훈련 끝에 D-day 하루 전인 1944년 6월 7일, 드디어 사단은 전투에 돌입했다.

〈제 2차 세계대전에 쓰인 용품들〉

여기에는 잘 알려진 M-1 개런드 총과 M-1905 총검, 8 원형 클립 그리고 여러 장비가 들어있는 야전배낭이 있다. 위에 보이는 것발은 곧 이야기 하게 되겠지만 1944년 8월, 독일로 부터 자신의 땅 프랑스를 해방시킨 사단에게 감사하는 표시로 한 프랑스 소년이 제 2공병대대 군인들에게 준 것이다.

-16

〈오마하 해변에 도착한 모습, D-day 하루 후〉

위에 보이는 지도는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제 2보병사단의 행로를 보여준다. 처음에 1943년 10월 18일 아일랜드에 있는 벨페스트에 도착한 뒤 1945 7월 13일에 프랑스 르 하브에서 유럽을 떠났다. 그들은 노르망디 해방운동이나 북프랑스, 라인 지방, 아르덴 알자스 전투 그리고 중앙 유럽 전부등 대부분 알려진 거의 모든 전투에 다 참석했다.

-17

차례 오마하 해변에서 인디언헤드 전투가 끝나고 노르망디에 상륙한 후 도시 브레스트에서 제 2 보병사단은 또 다른 복병을 맞았다. 39일 동안에 제 2보병사단 병사들은 브레스트 도시 안에서 독일군을 상대로 도시 곳곳을 샅샅이 장악하며 전투를 펼쳤다. 병사들은 이 곡사포 같은 대포 부품들을 하나씩 힘껏 들어 올려 건물 안으로 옮겨 적군 탱크로 바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단의 도움으로 마침내 브레스트 지역은 1944년 9월 18일에 해방되었다.

-18

제2차 세계대전 노병 로버트 홉킨스 병장은 1944년 12월 벌지 전투에서 포위당하여 2300여명의 죄수들과 함께 스탈랙 전투에서 강제행군을 하였다. 1945년 1월 제 38 야전 포병대대 사제였던 홉킨스 병장은 처음으로 브루스 전투의 미 죄수들을 위하여 독일 내에서 공식적인 군 내 장례식을 치렀으며, 독일도 깃발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나무판과 끈으로 만든 임시변통의 함에 묻힐 수 있도록 해주었다.

깃발은 영국국군이 캠프에서 훔쳐온 가방 두개를 이어 만들었는데, "깃발은 피가 섞인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고 병장 홉킨스는 회상한다. 경호원들은 선전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죄수들이 그 사진을 훔쳤다.

-19

독일인들은 이에 분노했고 3일 뒤 영국군들이 발 안쪽에 총알을 넣고 죽을 때까지 6인치씩 위로 터트려서 사살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말은 "깃발을 찾지 못하도록 해 달라, 죽은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 사용해 달라."였다고 한다. 병장 홉킨스는 300기념 주년에서 깃발을 사용 했을 뿐 아니라 전투에서 죄수로 끌려갔던 동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데도 썼는데, 비로소 그가 탈출 하고 나서야 깃발을 손에 쥌 수 있었고 이름이 세상 밖으로 알려진 것이다. 1979년, 병장 홉킨스는 손으로 만든 깃발과 성경을 제2보병사단 박물관에 기증했다.

〈벌지 전투를 표현한 입체 조형물〉

-20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시품들〉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여 예정대로 전투에 참석하기로 되어있었지만 B-J날((제 2차 세계대전의) 대일(對日) 전승기념일)에 제2보병사단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 전체가 이동을 한 후, 전사들은 워싱턴에 있는 포트 루이스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북극 공중 상륙 계획 작전을 수행하고 책략을 짜는 훈련을 했다.

-21

〈영웅 김동석 대장 전시관 모습〉

대한민국 육군 장교이며 국민 리더이자 미 동맹국에 충실했던 김동석 대장이 쌓아온 커리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다. 그는 1943년 중국 하얼빈에서 자랐으며 1923년 러시아 보스톡에서 태어났다. 후에 일본군에 징집되어 몽골로 끌려갔다. 가을에는 일본에서 장카이 밑에 중국 국민정부군에 들어가 빠른 속도로 승진했다. 1948년에 그는 서울로 와서 한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1949년 전체 8등으로 졸업하게 된다. 한국전쟁 중에는 인간지능 파견대(특수부대)에서 대령으로 승진하게 된다. 전투중인 구역 내에 적군을 파고 들어가 전환 작전을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김 대령과 나머지 팀원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국가 안보를 잘 지켜왔다. 그는 위업으로 남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잘 보여주는, 적군 뒤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힘들고 끔찍한 훈련들도 많이 수행했다.

-22

그의 뛰어난 업무능력과 한-미간의 친밀 동맹회 회장직 덕분에 김 대장은 제2보병사단과 제8군, 그리고 주한미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감사장을 받았다. 그는 또한 2000년 12월 2보병사단으로 부터 "김대장의 날"이라는 명예로운 기념일을 갖게 되었고, 제2보병사단 박물관에 자리하고 있는 그가 나라에 희생한 업적과 그의 생애를 전시하는 김동석 대장 전시관을 받게 되었다. 김 대장은 2009년 3월 26일 생을 마감했다. 그는 40년 동안 제2보병사단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변함없는 친구였다.

〈김 대장의 사진들과 상패들〉

-23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약 400시간동안, 조선인민군의 침략이 있었다. 제 105 기갑여단과 조선인민군 제 3,4사단이 행한 주공격은 서울로 연결되는 의정부 길을 방어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제7사단을 향해 있었다. 제1조선인민군과 제6사단은 개성-문산 길을 따라 대한민국 제1사단을 공격했다. 제 2사단과 제7사단은 춘천을 표적으로 공격했다. 동해안 길을 따라서는, 제5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제 8사단을 공격했다. 6월 28일에, 남한 사람들은 한강 북쪽에 있었고, 서울은 적군의 손아귀 안에 있었다.

제 2 보병사단은 6월 25일 전쟁이 터진 뒤에 동쪽 끝으로 움직일 것을 요구하는 급박한 지시를 받았다. 그들이 7월 23일 부산을 거쳐 미국에서 바로 한국에 도착한 것은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였지만 사단은 그들을 8월에 제 24보병사단을 낙동강 주변까지 이르게 했다.

-24

북한이 1950년 8월 31일 밤에 행한 기습공격으로 인해 우리는 처음으로 골치아픈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그 뒤로 이어진 16일 간의 공격으로, 사단의 사무원들과 약단들, 그리고 기술자들과 직원들도 공격에 대항하여 전투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곧, 전투사단은 부산 주변을 파괴하게 되는 첫 조직이 되며 그들이 제 8육군사단이 만주 국경을 향해 돌진하도록 돕게 된다. 인디언헤드 사단은 북한 수도인 평양에 도달하게 된다.

1950년 11월 말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의 개입은 제8미군과 제2보병사단이 대참패를 겪게 하도록 전쟁의 국면을 바꾸어 놓았다.

-25

1950년 11월 29일제2 공병 대대는 평양 북쪽에서 약 60마일 정도 떨어져있던 구리시 근처에 있던 제2보병사단의 철수를 방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점점 감소하는 제 9사단과 제38보병사단이 순천으로 가는 행로 중에 동쪽으로 후퇴하는 와중에 제2 공병부대는 사단을 후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약 60.000 명이 되는 총 다섯의 중국 사단을 방어했다. 제2 공병부대는 식량이 부족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낳는 환경 와중에도 사단을 계속해서 방어했다. 그러나 다음날

전투 지휘관이었던 알라리 중령은 곧 중공군 무리가 떼지어 방어태세에 접어 들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래서 그는 후 중공군이 대대의 깃발을 전쟁의 전리품으로서 쓰일 것을 막기 위해 불태워 버릴 것을 명령했다. 1950년 11월 30일 약 2000시간 후에 깃발은 완전히 불탔고 곧 머지않아 중공군의 소리가 제2공병대대를 향한 마지막 공격에서 북소리와 함께 인해전술로 가득 찼다. 제2 공병대대로 인해 제2보병사단은 철수할 수 있었지만 정예요원 266명만이 남는 희생을 치뤄야 했다.

〈한국전쟁 중에 다친 한국 시민을 치료하고 있는 제2보병사단 의병〉

-26

위에 보이는 UN전시는 한국전쟁 중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게 바치는 것이다. 한국 전쟁에 참여한 나라는 네덜란드, 프랑스, 호주 그리고 태국이 있다. 전에 등장했던 장교를 비롯해 많은 군인들은 한국 전쟁 중에 제2보병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UN의 도움으로, 한국은 자유와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다.

〈(왼쪽으로부터)임진강을 건너는 모습, 38선에서 제2보병사단〉

-27

〈한국 전쟁 중에 도랑 안에 있는 모습을 재현한 입체모형〉

제2 보병사단은 오래된 자랑스러운 다양성의 역사가 있다. 이 세 개의 조형물을 보면 싸우고 있는 병사 세 명이 모두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을 알 수 있다. 흑인병사를 후위에서 돌봐준 백인 병사 옆에는 함께 서있는 카투사군을 볼 수 있다. 1948년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중요한 강령을 내렸는데, 이 강령은 군내에서 ‘인종차별폐지법’ 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한국 전쟁 때가 돼서야 육군참모총장이 인종차별폐지법을 즉각 명령했고 마침내 우리가 각기 다른 피부색을 가진 병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28 냉전

1953년 7월 27일 휴전 후에 사단은 1956년에 알래스카로 떠나기 전 2년 동안 머물렀던 워싱턴에 있는 포트 루이스로 돌아오게 된다. 1958년 봄, 육군성은

독일에서 돌아오는 제20사단과 장비를 갖춘 채, 제2보병사단이 조지아에 있는 포트 베닝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명령했다. 포트 베닝은 원래 훈련 사단이 머무르는 곳으로서, 1958년부터 1965년까지 새로운 제2보병사단의 고향으로 남아있었다.

1965년 7월 1일 사단 깃발은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제1기갑부대의 병사들은 첫 번째 팀 배지를 없애고 제2보병사단 군인들로 거듭났다. 제2보병사단은 비무장지대(DMZ)의 한 부분을 지키도록 배속 됐고 메니솔라의 전쟁을 억제하도록 도왔다. 북한군의 폭력적인 국경급습과 침입하려는 시도가 늘어났고 제2보병사단은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 매번 불려갔다.

-29

1966년 11월 2일 제1 대대 병사들과 제23 보병사단은 북한군의 기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1967년 비무장지대에서 적국의 공격은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16명의 미군이 그 해에 목숨을 잃었다.

<휴전회담>

-30

1976년 8월 18일 아더 모니퍼스 대령과 미국 유엔군 마크 버렛 중위는 보안구역에서 평소와 같이 나무를 다듬다가 북한군에게 공격당해 죽었다.

3일 뒤 1976년 8월 21일 유엔군은 펄 버넌에게 행동을 개시할 것을 명령했다. 제2보병사단은 보안구역 대대 지휘관의 이름을 딴 태스크 포스 비에라의 도움을 받아 사단 명령관의 이름을 딴 브래디 기동부대를 소집하였다. 약 700시간 후에, 대한민국, 제9보병사단, 그리고 행정장교, 제2공병부대들은 비무장지대로 이동했고 "판문점 나무"를 잘랐다. B-52폭격기는 미 F-4 전투기와 F-5전투기의 보호를 받으며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높게 날았다. 오산 에어베이스에서 F-111 전투기는 완전히 무장된 상태로 이륙할 준비를 하며 명령이 떨어지기를 대기하고 있었다.

항공모함 미드웨이 기동부대 역시 연안에 있는 정거장으로 이동했다. 제2보병사단은 명백한 메시지를 북한군을 포함해 전 세계에 전달했다.

-31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를 통틀어, 제2보병사단은 비무장지대를 계속해서 보호했다. 냉전이 끝난 후, 제2보병사단 전사들은 1992년 비무장지대를 떠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방어벽을 배치했다.

1995년 3월 29일, 제3부대와 제2보병사단은 제1 부대로서 워싱턴 포트루이스에 다시 모이게 됐다. 그들은 2000년 5월 육군으로서 첫 스트라이커부대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냉전 중 조선인민군의 물품〉

-32 이라크 해방작전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제3 스트라이커부대는 이라크의 자유를 찾는 목적으로 워싱턴에 배치되었다. 2004년 8월, 제2 여단전투단은 한국에 있던 그대로 한국군과 나란히 일할 수 있는 이라크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배치는 한국으로부터 첫 수행배치라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라크 평화발령을 갔던 도널드의 물품 전시〉

박물관 안에 전시된 많은 테마 중 하나는 용맹한 하사관 도널드 에코에 관한 것이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불에 붙은 차를 발견하자마자 자신의 안전은 생각도 않은 채 안에 있던 노부부를 구조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그의 용기로, 군대는 그에게 군인 상패를 수여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2004년 이라크 평화 작전을 수행하던 때, 순찰 중 갖고 있던 폭발 위험물질이 폭발하면서 목숨을 잃었다.

-33

〈이라크 평화 파견근무 입체 모형〉

-34

〈카투사 역사〉

한국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군들이 자신의 상대자로 한국군을 일컫는 ‘카투사’ 라는 용어를 자주 들어봤을 것이다. 카투사는 ‘한국군의 미국군 안으로

의 증가' 라는 뜻인데, 1950년 7월 이승만 한국 초대 대통령과 유엔 지휘 육군대령 더글라스 맥아더 사이에 맺은 비공식적인 협정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 한국전쟁 이후로 미군의 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시작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 육군이자 대한민국정부에서 인증 받은 군인으로서 처음으로 모집했던 카투사는 일본 제7 보병사단에 정원이 모자라는 것에 증강병력을 위해 배정되었었고, 후에 한국으로 배치되었다. 미국 전투사단은 1950년 8월 20일 페니슬라에서 최초의 카투사 인원증대를 받았고, 각 군에서 100명씩 배정을 받았다.

-35

1952년 말, 카투사는 사단에 2000명, 제8전투 지원 부대에 나머지 병사들이 머물러, 그 수가 총 27000명에 다다르게 된다. 1971년 7월 한국 내 지상부대의 감소로 사단에 약 1700명이 남아있게 된다. 오늘날, 카투사 병사들의 수는 1130명에 달한다.

카투사 병사는 미국 조직 내에 완전히 속하게 된다. 병사들은 미군들과 함께 지내며, 일하고 미군전우들과 함께 훈련도 받는다. 한국병사는 카투사조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뿐 아니라 함께 지내는 상대 미군에게 한국 혹은 한국 사람에 대해 더 알려주어, 운영조직력을 높여주기도 한다.

〈제2보병사단 카투사 병사와 미군이 필드에 있는 모습〉

-36

〈지평리 리더십 실험실 모습〉

1951년 2월 5일, 제23 연대 전투 팀은 지평리 좁은 계곡으로 이동했다. 제23 지휘관이었던 필 프리먼 대령은 자신이 핵심방어 라인 중 가장 핵심적인 맨 앞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퇴를 요청했다. 그러나 제8미 육군 지휘 소장이었던 매튜 리즈웨이는 제23 연대 전투 팀에게 중공군에 대항하여 물러나지 않을 것을 명령했다.

1951년 2월 13일, 제23 연대 전투 팀은 프랑스 대대와 함께 총90000명의 중공군 3개 대대에 포위되었다. 계속된 치열한 전투로 제23연대 전투 팀의 물품이 부족하게 되자, 비행기로 탄약, 의약품 등이 배급되었다. 미 공군은 중공군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131개의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37

프리먼 대령은 전투 첫날에 부상을 당해 잭 차일스 대령으로 교체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병력을 계속해서 요청하며 전투를 지휘했다. 3일 넘게 제23연대 전투 팀은 얼어붙는 날씨에도 힘차게 싸웠으며 약 5000명의 중공군을 궤멸시켰다. 지평리 전투는 중국군을 물리치고 전쟁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첫 주요 전투였다.

지평리 전투 동안에, 시트먼은 무장한 적군에 대항하여 용맹함과 대담함을 스스로에게서 구분지으려 했다. M중대 기관총 담당자였던 그는 I중대에 들어간다. 적군의 수류탄으로 기관총이 못쓰게 된 동안에도, I중대전담반은 즉시 경기관총을 주었고 시트먼과 동료들은 안전하게 전투 할 수 있었다. 적군이 시트먼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고 자기 몸에 수류탄이 폭발하도록 받는 모습을 보고 모두들 경악했다. 이런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함으로 그는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지만, 그의 이런 용감무쌍한 행동으로 다섯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계속된 공격 속에서 가차 없이 적군에게 공격을 가하게 할 수 있었다. 시트먼의 숭고한 자기희생과 훌륭한 헌신은 계속해서 영광으로 남을 것이며 국군 내 숭고한 전통으로 유지될 것이다.

-38

〈전투에 쓰였던 인공물들〉

〈시트먼의 명예 훈장〉

-39

제1차 세계대전

프랭크 바트

C중대, 제9보병사단

프랑스, 1918 10월 3일

루이스 쿠켈라
제66중대, 제5해양연대
프랑스, 1918 7월 18일

데이빗 헤이든
제2대대, 제6해양연대
프랑스, 1918 9월 15일

찰스 호프먼
제49중대, 제5해양연대
프랑스, 1918 10월6일

존 조셉 켈리
78중대, 제6해양연대
프랑스, 몽블리지 1918 10월 3일

매트 코카
66중대, 제5해양연대
프랑스, 1918 7월 18일

알렉산더 고든 라일
제5해양연대
프랑스, 1918 4월 23일

그레이드 위든 오스본
제6해양연대
프랑스, 1918팔 6월6일

올란도 헨덜슨 페티
제5해양연대
프랑스, 1918 6월 11

존 헨리 프로트(사후)
78중대, 제6해양연대

프랑스, 1918 10월 3일

프레드 스톡힘(사후)

96연대, 제2전투부대, 제6해양연대

프랑스 1918 6월 13,14일

루도비커스 반

M중대, 제9보병사단

프랑스, 11월 9일

제2차 세계대전

앨빈 캐리(사후)

제38보병사단

프랑스, 1944 8월23일

리차드 엘리 코윈

제23보병사단

벨기에, 1944 12월 17일

트리먼 킴브로(사후)

제2공병전투대대

벨기에, 1944 12월19일

조세 로페즈

제23보병사단

벨기에, 1944 12월 17일

존 맥베이(사후)

H중대, 제23보병사단

프랑스, 1944 8월 29일

윌리엄 소더먼

K중대, 제9보병사단

벨기에, 1944 12월 17일

한국전쟁

토니 버리스(사후)
C중대 제38보병사단
문동리 1951년 10월 8,9일

주니어 에드워즈(사후)
E중대, 제23보병사단
창동리, 1951년 1월 2일

리 하텔(사후)
제15야전포병
고방산리, 1951 8월 27일

프레딕 헨리(사후)
F중대, 제38보병사단
암동, 1950년 9월 1일

로렌 카프먼
G중대, 제9보병사단
용산, 1950년 9월 4,5일

-41

어니스트 코우머
A중대, 제72 탱크 전투대
1950 9월 1일 ,8월 31일, 아곡

에드워드 크라조우스키(사후)
B중대, 제9보병사단
톤돌, 1951 8월31일~9월3일

허버트 리
I중대, 제23보병사단
입오리, 1951 2월 1일

찰스 룡(사후)
M중대, 제38보병사단
형송, 1951 2월 12일

조셉 오우렛(사후)
H중대, 제9보병사단
용산, 1950년 8월 31~9월 3

허버트 케이(사후)
C중대, 제23보병사단
피아리, 1951년 9월 17일

존 피트먼
C중대, 제23보병사단
구장동, 1950 11월 26일

로널드 로서
헤비 모터 중대, 제38보병사단
봉길리, 1952년 1월 12일
윌리엄 시트먼(사후)
M중대, 제23보병사단
지평리, 1951년 2월 14일

데이빗 스미스(사후)
E중대, 제9보병사단
용산, 1950 9월 1일

루터 스토리(사후)
A중대, 제9보병사단
아곡, 1950 9월 1일

찰스 터널(사후)
제2 정찰 부대
용산, 1950 9월 1일

트래비스 왓킨스(사후)
H중대, 제9보병사단
용산, 1950년 9월 1일

-43

이 북한기는 1950년 10월, 북한 평양 중앙청에 있는 김일성 사옥에서 사라졌다. 그의 사옥은 현재 접근금지 상태이며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지적인 일을 목적으로 녹음을 하거나 문서조각을 찾아내기를 기대하며 보안요원은 평양으로 향했다. 아이반호라는 이름을 가진 이 보안군은 지원 조직이었으며 제2보병사단 병사들과 대한민국 지식인으로 구성되었다. 아이반호 지휘관은 잭 영이었다.

엠펙 파커 병장과 김일성 사옥을 찾은 히치 상등병은 이 깃발을 없었다. 히치는 1987년 이 깃발을 제2보병사단 박물관에 아이반호 보안군의 이름으로 기증했다.

-44

〈제2보병사단 여군 전시와 1998홍수〉
〈삼각으로 구성된 전시관과 변화하는 갤러리〉

-45

〈한국물품 전시관〉

-46

〈명예의 전당에 있는 훈장〉

다시 한 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제일의 박물관!

온라인으로도 방문해 보세요!

<http://www.2id.korea.army.mil/history/museum>

Facebook page: 2d Infantry Division Museum